

[기획] >> 4면
학과구조조정의 실제

[기획] >> 7면
미투운동, 변화의 바람

[사회] >> 8면
왜곡된 그 이름 '펜스룰'

[인물] >> 12면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윤덕민 교수

미투 운동, 대학가에 울리는 경종



미투 운동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권력형 성폭력의 실상이 공개되고 있다. 대학가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전국 대학이 각종 성추문으로 몸살을 앓으며 이에 대한 폭로가 지속됐고 우리학교 또한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연이어 터진 우리학교 성폭력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7면에서 계속

글·사진 정동민 기자 95won01000@hufs.ac.kr

새롭게 개편된 장학제도

우리학교 장학제도가 이번 해 1학기부터 새롭게 개편된다. 학생지원팀에 따르면 이번 해 1학기부터 △긴급 가계곤란자 지원△개인역량개발△교내 근로 장학금 확대를 위한 교내 장학금을 신설하고 재학생들의 등록금 초과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신설 교내 장학금으로는 △HUFSS 장학금△HUFSS UP 장학금△외대지킴이 장학금△HUFSS POLICE 장학금이 있다. △HUFSS H 장학금△외대지킴이 장학금△HUFSS POLICE 장학금△HUFSS SOS 장학금은 모두 등록금 초과 지원이 가능하며, HUFSS UP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지원 가능하다.

한편, 가계곤란자 지원 및 개인역량 개발 등 다양한 활동지원을 위한 교내 장학금 확대 지원을 위해 이번 학기부터 학장장학금과 학과(부)장 장학금이 10% 감액될 예정이다.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러시아연구소, 제172차 콜로키움 종료

지난달 20일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인문한국 프로젝트 제172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선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과 '푸틴 4기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한반도'를 주제로 바실리 미헤예프 박사 겸 모스크바 소재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부원장이 발표를 이끌었다. 발표에서 미헤예프 박사는 지난달 18일에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한 사실을 설명하고, 67%가 넘는 투표율과 76%가 넘는 득표율은 러시아 국민이 푸틴 대통령에게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헤예프 박사는 "러시아 대외정책의 기본 기조는 크게 변함이



유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러시아연구소는 2000년 3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러시아 및 CIS 지역 연구를 선도하는 국내외 학자 또는 유명 인사를 초빙해 콜로키움을 진행하고 있다.

홍주연 기자 95m52535@hufs.ac.kr

기초부터 고급까지!
해외연수 그 이상의 효과
실용 회화능력 집중 향상!
국내 최고의 외국어마스터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2018년 상반기 외국어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과정소개]

FLC 외국어교육과정은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해외연수 및 유학준비생, 인사혁신처 추천 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회사원, 그 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체계적이고 강도높은 교육을 통해 실제 의사소통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켜 해외연수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외국어마스터 과정으로 특히, 과정 이수 후 교육성과 및 만족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1. 교육일정

[10주 주간/야간 정규과정 :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균형있는 통합교육]			
구분	주간		야간
입수기간	2017. 12. 11(월) 부터~		
교육기간	2018. 02. 05(월)~06. 22(금)		
교육시간	09:30~16:20 1월 642,000원~4월 995,000원	18:40~21:30 1월 342,000원~4월 995,000원	
총 교육비	총 604,000원		총 300,000원
반면정(시험비) (Level Test)	01. 20(토) 예정 (장소:주자관1층수강실)		
교육비	3,737,000원		1,821,000원

[10주 야간회화과정 : 단기/간 실용 회화능력 집중 향상 교육]			
구분	주간		야간 11471
입수기간	2017. 12. 26(목) 부터~		2018. 03. 05(월) 부터~
교육기간	2018. 02. 05(월)~04. 19(금)		2018. 04. 16(월)~06. 22(금)
교육시간	18:40~21:30 1월 242,000원~4월 995,000원		18:40~21:30 1월 242,000원~4월 995,000원
총 교육비	총 804,000원		총 804,000원
반면정(시험비) (Level Test)	01. 20(토) 예정		4월초(별도공지)
교육비	월반: 594,000원 야반(월반): 482,000원	월반: 594,000원 야반(월반): 482,000원	

[10주 주말특별과정 : 단기/간 실제 의사소통능력 집중 향상 교육]			
구분	주말		
입수기간	2017. 12. 11(월) 부터~		
교육기간	2018. 02. 24(토)~04. 28(토)		
교육시간	10:00~17:00/월 6시간/토요일/주말		
총 교육비	총 804,000원		
반면정(시험비) (Level Test)	02. 10(토) 예정 (장소:주자관1층수강실)		
교육비	671,000원		

※단, 위 교육비는 일반적인 기준의 교육비이며, 인사혁신처 추천 공무원 및 별도 위탁교육생의 경우 교육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문의

2. 교육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마인어 외
- 과정별 특성에 따라 모집언어는 다를 수 있으며 모집공고시 자세한 교육언어 참조
- 언어/레벨별 적정인원 모집시 개설되며 모집인원 미달시에는 개설되지 않음

3. 교육대상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해외연수 및 유학준비생, 인사혁신처 추천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그 외 일반인 등 제한없음.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홈페이지 수강신청 및 교육비 결제
- STEP 2: 접수확인
- 과정진행 절차 : 수강신청-교육비결제-레벨테스트-반편성완료-개강확정
- 수강신청 바로가기-과정 및 언어선택-원서작성-교육비 결제
- 홈페이지 수강신청 및 교육비 결제(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
- 교육비 결제 : 인터넷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가능
- 수강신청 및 교육비 결제 완료 후 최종 접수여부 확인
- 무통장 입금의 경우 반드시 본인명의로 정확히 입금 후 입금확인

5. 반편성 시험(레벨 테스트)

- 시험내용 : 독해, 인터뷰
- 독해는 영어 30문항 내외, 기타 외국어 40~50문항
- 인터뷰는 1:1 면담 인터뷰로 진행되며 약 5~10분 소요
- 단, 총 소요시간은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1시간 30분 소요
- 반편성 시험은 개인별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시험으로 답락은 없음
- 반편성 시험의 내용, 구성, 진행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취소 및 환불안내

- 개강일 전까지 : 전액만, 전행로 제외 환불 ※공통
- 20주(주간/야간) : 개강 후 6주까지 교육비-전행로×60% 환불
- 10주(야간) : 개강 후 2주까지 교육비-전행로×70% 환불
- 10주(주말) : 개강 후 3주까지 교육비-전행로×70% 환불

- 환불시 소정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며 환불기간 이후 일체 환불이 되지 않음
- 반편성시험(Level Test) 이후 환불시에는 전행로(30,000원)가 공제됨
- 환불시 홈페이지(열린광장-자료실) 등록취소신청서 작성 후 계좌이체로 함께 제출
- 환불신청 후 실제 환불까지는 약 1~2주 정도 소요됨

7. 기타사항

-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통한 수준별 반편성 및 맞춤수업
- 언어별 특성 및 교육용 레벨에 따라 수업시간, 교과목은 다르게 편성됨
-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신청 외 인사혁신처 추천 및 기관, 기업체 위탁교육 신청의 경우 별도 문의
- 정규과정 외 기관 및 기업체를 위한 맞춤형 위탁과정 상시개설
- 기관 및 기업체 위탁과정의 경우 인원제한은 없으며 교육기간, 요일, 시간 등 자유설계 가능
- 과정 이수시 수료증 발급, 과정별 수료요건(출결 및 평가) 별도 문의

8. 문의처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02-2173-2524-5 FAX.02-962-0575
http://fltc.hufs.ac.kr | www.facebook.com/hufsfllc | fltc@hufs.ac.kr

FLC PROGRAM

20주 주간/야간과정 : 2월, 8월 개강 | 10주 야간과정 : 2월, 4월, 8월, 10월 개강 | 10주 주말과정 : 2월, 8월 개강 | 방학특별과정(겨울/여름) : 1월, 7월 개강 | FLEX시험대비과정(공무원유학시험대비) : 3월, 9월 개강 | 대학원외국어시험대비과정 : 3월, 9월 개강 | 통번역기초과정 : 3월, 9월 개강 | DELT시험준비과정 : 시험일 기준 2개월 전 개강 | TOMER테카어과정 : 2월, 4월, 8월, 10월 개강 | 기업체·기관 위탁과정 : 수시 개강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FOREIGN LANGUAGE TRAINING & TESTING CENT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우리학교 말레이문명연구회-지식출판원, 세계문화유산답사기 특강 개최해



지난달 20일 오후 6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사 이버관 소강당에서 '자바 우체부길'의 저자 고영훈 말레이·인도네시아학과 교수가 '저항의 키워드로 인도네시아, 자바 우체부길을 둘러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특강은 도서를 발간한 지식출판원과 말레이문명연구회의 공동 주최 아래 개최됐다. 고영훈 교수는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동서 횡단도로를 이동하며 준비한 '자바 우체부길'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연을 진행했다. 소강당을 가득 채운 학생과 교수, 학계 관계자들은 한 시간 가장 편안하게 강연

을 들으며 인도네시아 자바 우체부길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우리학교 지식출판원은 대학의 인적 인프라를 통해 세계문화유산답사기 제작을 기획하고 있으며 최근 그 두 번째 책자로 인도네시아 문화유산 답사기인 '자바 우체부길'을 발간했다. 책은 제목 그대로 '자바 우체부길 1000km'를 돌아보며 '저항'이라는 키워드를 따라 인도네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도서다..

고유진 기자 95howcuty@hufs.ac.kr

국제협력전략센터의 '한국-태평양동맹 경제협력 시대의 개막' 컨퍼런스 열려



지난 8일 우리학교 국제협력전략센터(CICS)와 대한상공회의소(KCOC)가 공동 주최한 '한국-태평양동맹 경제협력 시대의 개막 (Korea and Pacific Alliance)' 컨퍼런스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태평양 연합 동맹의 회원가입을 고려함에 있어 태평양 동맹에 대한 국내 학계 및 기업 사회의 이해를 돕고 우리나라와 중남미 경제 관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김원호 국제협력전략센터 소장의 개회사와 김찬우 외교부 중남미협력과 과장,

주안파블로(Juan Pablo) 주한 콜롬비아대사의 축사로 포문을 열었다. 뒤를 이어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의 경제적 효과△태평양동맹의 경제여건과 한국의 진출 전망△한-멕시코 경제 관계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일반인 참석자를 포함해 △각국의 외교관△정부 관료△기업인△학자 등 태평양동맹과 관련한 저명한 전문가 약 1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미래에셋, 우리학교 2학기 해외 파견 대상 교환 장학생 선발



사진 출처: 미래에셋홈페이지

미래에셋이 이번 해 가을 학기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미래에셋 장학재단은 "넓은 세계에서 다양한 학문적,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더 많은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해외 교환프로그램을 위한 학업 및 생활 지원'이라는 명

목 하에 아시아 국가 교환학생의 경우 장학금 500만원을 지급하며 아시아 지역 이외의 국가 교환학생에게는 70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이번 달 3일 2시부터 10월 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지원가능하다. 두 차례의 심사 이후 합격자 발표는 6월 11일에 개별 안내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러시아연구소, 북극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러시아 연구소는 지난 9일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북서시베리아와 북극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적 이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강덕수 부총장 및 러시아연구소장의 개회사와 데니스 부로빈 러시아 대외 협력청 한국지부장치의 축사로 시작됐다. 뒤를 이어 러시아연방 야쿠티야 공화국 북동연방대학교 학자들의 발표를 포함해 총 9편의 논문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러시아연구소 소속 연구 인력인 김민수 교수가 야쿠티야 지역 전통 장례문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

행했고 이어 최우익 교수가 야쿠티야 지역의 삶의 패턴과 질, 김선래 교수가 러시아 지역 간 불균형 극복: 러시아연방의 극동개발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참여했다.

한편, 이번 학술회의에는 △최태강 한림대 러시아연구소장 △한종만 배재대 북극연구소장 △장삼박사 △20여 명 △대학원생 △학부생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북서시베리아 지역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문제점'과 '북극항로 개발의 전망'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우수) 교육대학원

세계와 소통하는 창의·인성·융복합 교원 교육의 최전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입학지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018. 4. 30(월) 14:30 ~ 5. 4(금) 21:30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교육대학원 교학처	-기간 중 인터넷 24시간 작성 -우편 제출 : 5. 4(금) 17:00까지 도착
면접 고사	2018. 5. 19(토)	-본교 대학원건물	-면접시간은 5. 18(금) 16:00 이후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입사뉴스에 공지함
합격자 발표	2018. 6. 7(목) 16:00 예정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gse.hufs.ac.kr) 공지	

▶ 모집 전공 및 인원

모집과정		모집 전공	모집인원
교육학 석사 (야간)	• 국어교육 • 스페인어교육 • 다문화교육 • 수학교육 • 교육경영과 리더십 • 독서논술교육	• 영어교육 • 일본어교육 • 역사교육 • 컴퓨터교육 • 상담심리 • 창의융합인재교육 • 어린이영어교육 • 중국어교육 • 일반사회교육 • 유아교육	○○○명

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인가?

국내 최대 최고의 교육대학원 전임교수 및 전공교수진
특화된 교원양성 과정 및 교원재교육 과정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활발한 학생회 활동과 적극적인 지원

입학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문의 02-2173-2421)

주소 :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e.hufs.ac.kr) 입학모집요강 및 입사뉴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지역학 전문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2018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석사과정】 한국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인도네시아학과, 중동아프리카학과, 러시아CIS학과 유럽연합학과, 미국캐나다학과, 중남미학과, 국제개발학과, 국제학과
【박사과정】 한국학과, 국제지역학과, 국제관계학과
【석박사통합과정】 한국학과, 국제지역학과

◆특징

-국내 유일의 국제지역학 전문대학원
-신입생 입학장학금(전원 지급, 등록금 20~30%)
-학과별 추천장학금(학기별 선발, 등록금전액)
-본교출신 조교 장학금 제도(학기별 선발)
-성적 장학금(재학생 80% 수혜)
-외부기관 장학금(POSCO, KIEP-GPAS 등 다수)
-3+1제도(재학중 1학기 외국대학 수학 후 학점인정)
*석사과정 비논트랙 운영(일부학과 제외)

◆원서접수

구 분	1차모집	2차모집
원서접수	4.4(목)~4.13(금)	5.17(목)~5.25(금)
면접일	4.28(토)	6.9(토)

◆문의처

TEL : 02)2173-2448, 2449
Website : http://gsia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우리학교 도서관, 다독상 시상식 개최해



▲서울캠퍼스 다독상 시상식



▲글로벌캠퍼스 다독상 시상식

지난달 29일 우리학교 도서관에서 2017학년도 2학기 다독상 시상식이 열렸다. 서울캠퍼스 시상식에는 송정남 도서관장이, 글로벌캠퍼스 시상식에는 김상범 도서관장이 참석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기준은 △학부생△대학원생△휴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 최다 대출자가 우수상을, 다음 최다 대출자가 장려상을 수상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다독상 시상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며 불편했던 점, 도서관에 필요한 책 종류 등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한편, 우리학교는 도서관 자료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장려를 위해 매 학기 다독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외대사랑순찰대 발대식 진행돼



우리학교는 지난달 19일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교내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외대사랑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28명의 외대사랑순찰대는 하루 14시간(09:00~23:00)씩 서울캠퍼스의 안전을 위해 순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학교축제 등 특별상황에는 순찰 활동이 심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동대문경찰서 김홍근 서장은 “외대사랑순찰대 활동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김인철 총장은 “외대사랑순찰대가 클린캠퍼스를 실현하는 우리학교의 등불같은 존재다”며 “작은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동민 기자 95won01000@hufs.ac.kr

‘2018-봄 시민인문대학 문학으로 일본 읽기’ 강좌 개강



지난달 5일, ‘2018-봄 시민인문대학 문학으로 일본 읽기’ 강좌가 우리학교 최재철 명예교수의 기획·주관으로 서울 특별시교육청 동대문도서관 2층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번 강좌는 동대문도서관과 한일비교문화연구소의 공동 무료이며 △일반 시민△직장인△학생들의 호응에 힘입어 90여 명이 수강 중에 있다.

주최 아래 6월 4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강좌는 △최재철 명예교수△손순옥 중앙대 명예교수△허호 수원대 교수△왕태웅 경북대 교수△이병진 한국비교문화학회장 △정병호 고려대 교수 등 전문가 11명이 강의를 맡았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 간 상호 이해 및 원활한 소통과 일본 문학을 통해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개설된 ‘2018-봄 시민인문대학’ 강좌는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2018 힌디어 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2018 विश्व हिन्दी दिवस 힌디어 대회’가 지난 23일 △인도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주한인도대사관△주한인도문화원△인도어과△인도학과와 공동 주최 아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행사는 인도 정부가 제정한 ‘세계 힌디어 날’을 기념해 인도 중앙정부 공용어인 힌디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높이고자 개최됐다. 행사는 △학술△문화△에세이 등 총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연설△시낭송△퀴즈△볼리우드 댄스△힌디어 노래△에세이와 같은 다채로운 경연들이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이성희 현마육영재단 이사장 ‘인생은 전략(戰略)이다’ 특강



지난달 22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이성희 현마육영재단 이사장의 ‘인생은 전략(戰略)이다’ 특강이 개최됐다. 이성희 이사장은

여러 명사를 예로 들며 그들이 살아온 인생을 소개하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이 우리학교 학생으로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250여명의 신입생들이 참석했으며, 특강 후에는 이성희 이사장의 자서전인 ‘그래도 머뭇거릴 수 없다’를 학생 20명에게 직접 서명해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성희 이사장 특강을 시작으로 김수환 글로벌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 진로취업지원센터 처장은 이번 해 학습포트폴리오 ‘신입생 세미나’와 ‘HUPS Global 꿈을 위한 외대 비전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저명인사 초청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대학가 잇따른 학과 구조조정..... 실리와 학문의 줄다리기

최근 국민대가 학교 측의 일방적인 학과 통폐합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다. 산림환경시스템학과(이하 산림학과)와 임산생명공학과(이하 임산학과)를 통합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사실상 산림학과와 폐지와 다름없다는 이유에서였다. △2011년 동국대 △2015년 중앙대 △2016년 인하대 △2017년 동덕여대에서도 이와 유사한 학과 구조조

정이 이뤄졌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취업률에 따른 학과 서열화 등의 요인으로 대학가에 학과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학가의 찬반양론이 뜨거운 상황에서 타 대학과 우리 학교 사례를 통해 학과 구조조정의 배경과 원인 등을 알아보자.

◆학교가 내린 학과 구조조정

구조조정은 기존 구조를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하거나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행하는 일련의 개혁 조치를 말한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학가의 학과 구조조정은 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주로 유사 학과 간 통폐합, 학과 정원 감축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학부제 시행 또한 학내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학부제는 학과제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전공학과를 학부 하의 세부전공으로 통폐합해 학생이 자신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학부제는 학생이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취업률이 높은 인기 학과에 학생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역기능도 존재한다. 학생들의 수요가 저조한 학과는 다른 과에 통합되거나 폐지 수순을 밟게 돼 결국 학과 구조조정의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학과 구조조정이 대두된 배경에는 대학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이 있다. 프라임 사업은 이와 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 자료에 따르면 인문·예체능계는 초과 공급 상태인 반면 이공계는 초과 수요 상태다. 프라임 사업은 이러한 사회와 산업의 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2016년부터 3년간 총 6000억원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으로 대학 학과를 사회 수요에 맞게 개편해 취업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모습의 학과 구조조정

최근 대학가에서는 학과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논의 방식을 두고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여대는 학과통폐합 계획을 두고 학교와 학생 간 마찰을 빚었다. 서울여대학보는 학교 측이 모든 학과에 전달한 '구조개혁 추진 계획' 공문을 개재하며 학교 측이 2019년 학과 통폐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학교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15%에 해당하는 학부·학과는 통폐합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학교 측의 결정은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같은 달 19일 철회됐다.

중앙대는 두산그룹에 인수된 후 2010년에는 18개 단과대를 10개로, 77개 학과를 46개 학과로 통폐합했고, 2011년에는 사범대 가정교육과를 폐지하며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중대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한제 인문사회계열 부총장은 가정교육과 폐지의 근거로 △낮은 임용

율과 취업률 △저조한 입학성적 △가정교육과 교사 임용 축소 등을 제시했다. 구조조정은 2013년에도 계속됐다. △비교민속학과 △가족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 등 인문·사회계열 학과가 동시에 폐지돼 학생들의 반목을 샀다. 중앙대 총학생회는 2014년 대학평의원회로부터 학과 통폐합 내용을 담은 '학문단위 구조개편 추진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 입학정원 감축 정책에 따라 정원을 2017년까지 4%(185명) 감축하면서 학과 구조조정으로 대학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당시 48개 학부, 22개 학과 체제를 4개 학부를 제외하고 44개 학부로 통합 평가한 뒤 11월에 통폐합할 학과를 확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대 재학 중인 박(사회복지학부 17)씨는 "학부제 시행과 더불어 복수전공과 전과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들면 비인기학과는 정원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학내 구조조정을 시행하며 해당 학과의 학생 및 학내 구성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인하대는 2016년 프라임 사업 선정을 위한 학제 개편 과정에서 학생들과 갈등을 빚었다. 해당 대학은 교육부에 프라임 사업을 신청하면서 전체 단과대학을 10개에서 7개로 통합하고 유사학과를 융합해 총 59개의 학과를 52개로 줄이는 계획을 공개했다. 세부 방침에 따르면 문과대 철학과 일부를 한국어문학과와 통합해 글로벌한국학과를 신설하고 일부는 문화콘텐츠학과와 통합해 문화콘텐츠융합학과를 만들어내는 등 무분별한 학과 통합이 예정돼있었다. 이는 학문에 대한 충분한 재고 없이 상이한 학문을 통합하는 데 급급했다는 학과 구성원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인하대는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학사구조 개편 및 학과별 정원 조정에 나서 교수 및 학생들과 또 한 차례 마찰을 빚었다.

◆학과 구조조정에 대한 상반된 입장

시행목적에 의하면 학내 구조조정은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아ют 뜻이 저조한 비인기학과를 정리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라임 사업의 진행 아래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출신률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대학 정원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여론도 존재한다.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현청 한양대 교육학과 석좌교수는 "전공을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의 변화하는 인재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대학의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학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학문의 다양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용학문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는 반면 취업률과 입시 결과가 낮은 기초학문들은 구조조정의 그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박씨는 "학문도 시대의 헤게모니에 따라 그 중요성의 무게가 변화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장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학문의 전공자를 양성하지 않으면 다음 헤게모니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게 됐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환욱(국제지역·아프리카 12)씨 또한 "미래에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통찰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며 "그런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선 다양한 학문을 경험할 수 있는 대학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는 "우리 학교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수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이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과 구조조정, 우리학교는?

우리학교 또한 지난 2014년 학과 구조조정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당시 학교본부는 사범대학 내 중국어교육전공 신설을 위해 △프랑스어교육과 △독일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등의 정원을 줄인 뒤 프랑스어교육과와 독일어교육과는 전공으로 격하해 중국어교육전공과 묶은 후 제2외국어 교육학부를 만들겠다는 개편안을 내놔다. 학생들은 학교의 이러한 결정이 당시 해당 외국 임용시험 선발인원이 없었던 탓으로, 학부제를 실시하면 인기가 많은 전공에 많은 인원이 몰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전공은 향후 폐지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유새롬(사범·프교 12) 사범대 학생회장은 이와 관련해 "약 30년간 졸업생을 배출해온 학과인데 학부제로 인해 학사운영상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전환욱(국제지역·아프리카 12)씨는 "대학은 취업을 위한 학문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취업률, 입시 결과와 같은 시장 논리로만 학과를 운영하는 것은 대학의 존재 목적과 맞지 않다"고 전했다.

학과 구조조정은 대학가가 직면한 문제다. 대학이 사회와 발전 방향을 같이 하는 동시에 교육 경쟁력 또한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의 소통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유진 기자 95howcuty@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8학년도 후기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8학년도 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18. 4. 2(월) ~ 4. 6(금)	4. 28(토) 10:00	5. 10(목) 14:00	5. 14(월)~5. 18(금)
일반전형	2018. 5. 8(화) ~ 5. 14(월)	6. 2(토) 10:00	6. 14(목) 14:00	6. 18(월)~6. 22(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8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2) 박사: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8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8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 2) 박사: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8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5.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6. 기타사항

-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HUFsan, 입학성적우수, 성적우수, 외국인유학생, 학과근로조교, 재외동포재 단, 학생회임원, 교학처근로조교, 정부초청, 한국장학재단, 기타 기업체 및 단체 장학금 등)
- 나.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 다. 전문연구원 제도 운영
- 라.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두 가지 갈림길,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2014년 12월, 우리학교는 절대평가로 운영되던 성적 평가 제도를 상대 평가로 변경했다. 갑작스런 학교의 통보에 학생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절대평가가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야기해 추후 취업이나 학교 명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반응과 상대평가가 학생들의 성취감을 저하시키고 무한 경쟁사회를 부추긴다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우리학교 성적평가 A방식에 의하면 A학점 상위 30%,

C학점 하위 30%로 칼같이 정해진 학점 비율은 그 이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대평가 제도로 학생들은 '성적 잘 주는 교수님' 혹은 '플러스 학점만 주시는 교수님'의 수업을 골라 수강하는 등 최대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헤맨다.

◆우리학교,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14년 12월, 학교 측은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절대평가를 유지하게 될 경우 추후에 발표될 대학 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대학평가에 서의 불이익은 △학교의 브랜드 가치 하락△정원감 축△국가장학금 축소△정부주도사업 참여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김인철 총장은 “대학의 학점인플레이션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대학 학점의 변별력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며 “학점분포가 최근 결정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자료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번 학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게 됐다”고 성적평가제도 변경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상대평가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평가 제도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거세다. 최우연(공과·산업경영 17)씨는 “A0를 받은 학생과 B+를 받은 학생의 점수 차이가 1점도 채 나지 않을 때가 있다”며 “1점 정도는 학습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비율에 맞춰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학점이 나뉘는 것은 시험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 또한 “대학에서는 교수가 수업을 통해 달성하려 했던 수준에 학생들이 도달했는지를 검증해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며 “절대평가는 공부한 만큼 점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학생들이 불필요한 두려움을 떨치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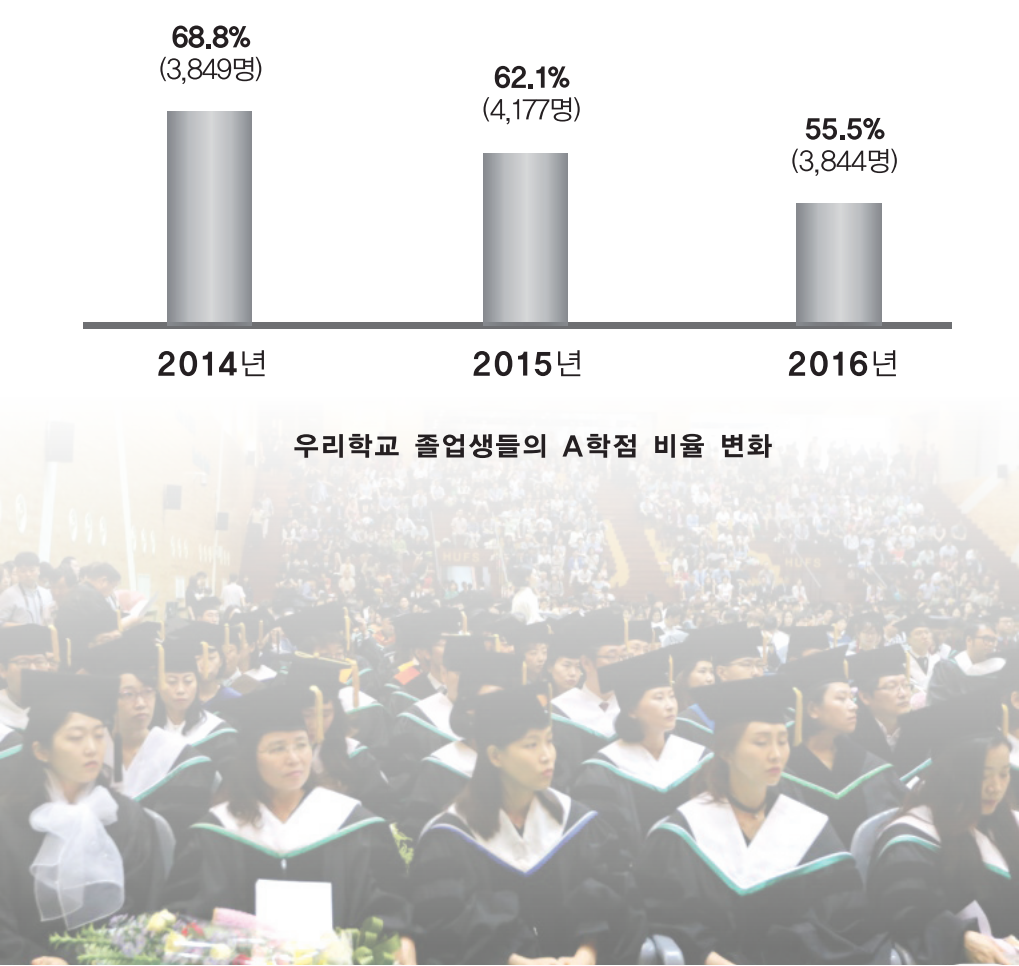
특히 재외국민·외국어 특기생은 다른 학생들에게 두려움 그 자체다. 대학알리미의 지난해 공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재외국민·외국어 특기생은 436명으로 신입생 정원의 약 13%를 차지한다. 외교·국제고 출신 학생 또한 신입생 정원의 15.2%를 차지한다. 고(영어·영어 17)씨는 “언어는 살다 온 사람들의 수준을 넘기가 힘든 것 같다”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통번역·스페인어 17)씨 또한 “나는 대학에 와서 처음 스페인어를 접했는데 같은 과 동기 중 몇 명은 외국어 고등학교 스페인어과 출신이라 처음부터 수준 차이를 느꼈다”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몇 발짝 앞선 동기들을 따라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화의 움직임

지난달 20일 성균관대는 학생들에게 수업 전 미리 제공한 동영상을 청취하고 강의실에서는 동영상과 관련된 심화 내용을 공부하는 수업에 부분적으로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성균관대는 중장기 발전계획인

‘성균 비전 2020’에서 “경쟁 중심 상대평가에서 성취 중심 절대평가로 바뀌어 한다”고 언급하며 평가 방식 변경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감△배려△협업이 경쟁력인데 상대평가를 하면 같은 조원들끼리 경쟁자로 여기기 때문에 개인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이화여대도 이번 해 1학기부터 1년간 학부 전체 교과목 성적을 교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교수자유평가’ 제도를 시범운영 중이다. 이 평가제도는 성적 평가를 유연화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이는 교과목 특성에 맞게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상대평가가 학점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률적 절대평가는 학점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학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전공 특성을 감안한 효율적 평가방식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고 전했다.

연세대 또한 성적 평가 방식에 변화를 꾀했다. 2014년 이후, 연세대 의과대학은 상대평가 제도에서 패스(PASS)·논패스(NON_PASS)제도로 성적 평가 방식을 개편했다. 개편 이후, 성적평가 체제에 따른 과목별 평균 점수분포 비교표를 참고한 결과, 성적 향상

도가 최대 12.21% 까지 올랐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일각에선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압박에서 자유로운 상위권 대학들만이 평가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대학에서는 교수가 수업을 통해 달성하려 했던 수준에 학생들이 도달했는지를 검증해 절대평가하는 게 맞다”며 “절대평가는 공부한 만큼 점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학생들이 불필요한 두려움을 떨치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절대평가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에 더해 김다은(국제지역·러시아 17)씨는

한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한 것이다. 실제로 대학알리미 ‘졸업생의 졸업성적 분포’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절대평가로 시험이 진행됐던 2014년, A학점 비율이 68.8%(3849명)로 서울 주요 대학 11개 중 가장 높았다. 이후 상대평가 제도를 처음 시작한 2015년, A학점 비율이 62.1%(4177명)로 절대평가가 이뤄졌던 해와 비교해 감소했다. 2016년 또한 55.5%(3844명)의 비율을 보이며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평가제도 변경으로 학점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며 학점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학생 평가’를 포함하는 ‘학사 관리’는 평가 지표 중 배점이 가장 낮다.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생 평가’ 항목을 위해서 성적 평가 방식을 변경한 학교 측의 결정에 한(아시아·인도어 16)씨는 “더 중요한 평가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평가 방식을 변경한 학교의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상대평가로의 변경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지만 과정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적합한 평가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많은 대학이 평가 방식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은희(대학연구소 연구원)씨는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교수의 재량으로 전공과 과목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재도 학교별로 자유롭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학점인플레이션 :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높은 학점을 주는 현상**

“다른 학교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는 움직임이 보이듯, 우리학교도 평가제도가 개편됐으면 좋겠다”며 학교의 제도 개선을 희망하는 목소리를 냈다.

◆절대평가의 이면과 학교의 속내

절대평가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학점인플레이션 현상’이다. 2015년,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1단계에서 총점 60점 중 ‘학생 평가’ 항목이 4점으로 배점됐다. 이 항목은 성적분포의 적절성과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 여부로 평가됐다. 불거지는 대학의 학점인플레이션 현상에, 성적에 대



2018 이탈리아 총선과 유럽의 미래



김시홍 교수
서양어대 이탈리아어과

지난달 4일 치러진 이탈리아 총선은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중도우파 연합이 37%로 가장 높은 지지를 이끌어냈으나 현행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하에서 프리미엄을 받아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40%의 득표에는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한계를 보였다.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당(M5S)은 단일 정당으로는 최대인 33%를 얻어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였으며 사실상 이번 선거의 최대 승자로 인정받았다. 반면 여당이었던 민주당(PD)은 20%의 지지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최대 패배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효과적인 정부 구성에 난항을 보이는 hung(Hung Parliament)을 만들었다. 오성운동당은 타 정당과의 협력이 용이치 않고 내심 민주당의 지지를 기대했으나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우파연합 역시 타 정파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정부 구성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하원의장에 오성운동당 출신이 그리고 상원의장에 우파 연합내의 전진 이탈리아당(Forza Italia) 출신이 맡게 됐다. 이 과정에서 우파연합의 동맹당(Lega) 당수 마테오 살비니의 중재가 주효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제 정부의 구성을 위해 공화국 대통령 중재로 다양한 정파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수권이 가능한 정당연합의 밑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운 선거법을 마련하는 원포인트 위기관리내각이 출범하여 조기총선을 치러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이탈리아 총선이 가지는 정치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일부 언론에서는 1992년 부패수사로 2차 대전 이후 집권당으로 군림해온 기민당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당체계가 출범했다는 차원에서 제2공화국의 도래를 주장한바 있다. 현재의 상황은 지난 25년을 풍미해온 우파의 전진이탈리아당과 좌파의 민주당 중심의 양대체제가 붕괴하고 포폴리즘 정당들이 득세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므로 제3공화국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세대와 지역 변수가 크게 작용해 19세기 통일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즉 오성운동당의 경우 남부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청년층과 실업자 그리고 낙후된 남부의 변수들 즉 경제적 문제들이 작용해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는 설명이다. 북부에서는 반 이민과 반유럽을 주장하는 또 다른 포폴리즘 정당인 동맹당(구 북부동맹)이 선전했다. 이는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반이슬람과 반이민이라는 문화적 요인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이 두 정당의 지지율 합이 50%를 넘는다는 차원에서 유럽통합은 브렉시트에 이어 또 다른 암운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탈리아에서만 나타나는 특수성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 없다. 기존의 정당체계에서 변화하는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 항의적 차원에서 기존 정당들에게 경종을 주는 투표의 행태가 유럽 여러 국가에서 현시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민과 난민의 물결에서 독일과 북유럽국가들을 제외한 남유럽과 동유럽의 다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탈리아 민주당의 몰락은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준다. 실제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중도좌파 정당들이 최근 지지율의 하락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와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를 지향해오던 유럽에서 시민계열 정당들의 후퇴는 유럽적 가치에 대한 훼손을 의미한다.

이탈리아 포폴리즘 정당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으며, 트럼프 체제의 미국에 대한 반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현상들은 그간 세계질서를 유지해온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한다. 따라서 메르켈과 마크롱의 리더십으로 유럽의 재가동을 도모하려는 시도에 이상의 현상들이 역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구심력이 아닌 원심력이 보다 강조돼 통합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것이다.

그간의 유럽통합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추동력을 발휘해 왔지만 기본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및 시장경제 등 가치공동체적 성격이 중요한 지역주의로 봐야한다. 그런데 1945년 이후 세계를 지배해온 자유주의 질서가 그 근본에서 흔들리고 있는 현실은 이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장기집권에 성공한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 푸틴의 사례에서 서구식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적용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세를 무기로 한 무역전쟁을 시도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입장은 적지 않은 우려를 낳게 한다. 미국은 더 이상 자유주의 세계의 수호자이자 세계의 경찰을 포기한 듯하다.

이번 해 이탈리아 총선은 한 국가의 선거 결과로만 치부될 수 없어 보인다. 2008년 재정위기 이후 긴축정책을 기조로 국가가 운영된 과정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 포폴리즘 정당들의 득세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연합적 국가운동(popolocrazia)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기제를 어렵게 만들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를 요하며 유럽의 리더들은 지중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위기에 대한 유럽적 솔루션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통합 기제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낮선 듯, 하지만 익숙한 모로코

따뜻한 봄이 왔다. 눈이 녹고 꽃잎이 피는 계절 봄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활동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계절이다. 날씨가 많이 풀린 탓인지 캠퍼스 내에도 산책하는 학생들이 종종 보인다. 우리 학교 서울캠퍼스 또한 '외대 월드컵'으로 그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은 △줄넘기△걷기△자전거△축구△배드민턴과 같은 비교적 가볍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부터 패러글라이딩이나 윈드서핑 등의 익스트림 스포츠까지 다양한 양상을 띤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생활 체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번 주제는 라바(모로코, 통번역·영어 17)과 함께 모로코의 가장 인기 있는 생활체육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자.

모로코는 아프리카 북서부 끝에 위치하며 대서양을 마주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모로코 사람들이 수영을 즐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다. 모로코는 전 국민의 98.7%가 무슬림이다. 예로부터 바다에 약수가 있다고 여겨 무슬림은 물을 무서워한다. 그렇다보니 오히려 해양 스포츠보다는 땅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을 더 선호한다.



▲덩크슛을 하고 있는 운동선수의 모습이다.
사진 출처: 네이버 이미지

특히 모로코인은 축구, 농구 같은 구기종목을 좋아한다. 공만 있으면 어디서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구기종목은 장벽이 높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종목이

기 때문에 단합도 잘 된다. 농구는 라바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이다. 중학교 때부터 즐겨 했고, 지금도 종종 즐기고 있다고 한다. 캠퍼스 내에서 라바를 발견하면 함께 농구 경기를 하자고 제안해보는 건 어떨까?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당시 모로코 축구 국가대표 팀이다. 사진 출처: 네이버 이미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축구는 모로코에서 가장 즐겨 하는 종목 중 하나다. 그들은 농구와 마찬가지로 공만 있으면 어디서든 축구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큰 매력으로 느낀다. 모로코의 피파(FIFA)랭킹은 42위로 높은 순위는 아니다. 하지만 모로코는 5번이나 월드컵 유치에 도전할 만큼 축구에 관심이 많다. 축구를 향한 모로코인의 열정도 대단하다. 학교 체육 시간 때도 축구를 즐겨 하고, 친구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관람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한다. 라바 또한 축구를 좋아한다. 라바는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월드컵 16강을 달성한 나라는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달, 우리나라와 모로코 경기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모로코의 열정적인 축구 경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티켓을 예매하자.

한소희 기자 96_1soy36@hufs.ac.kr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1955년 4월 11일,
우리학교 역사의 보고,
외대학보가 탄생하다.



▲1970년대 외대학보사 기자실



▲1980년대 외대학보사(1989, 現 법학관 위치에 있었던 舊 학생회관)



▲외대학보 창간호(1955)

우리학교가 개교 1주년을 맞을 즈음인 1955년 4월 11일, 우리학교 언론의 상징인 외대학보가 창간됐다. 창간 당시 외대학보의 발행인은 안호삼 학장이었고, 편집인은 손병순(노어과)학생편집장이었으며 발행처는 외대 출판부였다. 창간호 1면에 "독자들에게 영향을 줄 글을 쓰라"는 학장의 인사말과 이선근 문교부장관의 "새로운 세계사를 창조하라"와 같은 촉사 등은 당시 우리학교 설립과 학보 창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우리학교의 공공(公器)로서 교육이념인 진리, 평화, 창조를 사시로 해 신문을 발행함으로써 대학생의 호국정신을 선양하고 건전한 학풍진작으로 보다 나은 면학과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간한 외대학보는 6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교내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또한 학내의 소식을 알리는 '신문(新聞)' 역할 외에 외국의 문예사조와 사상의 흐름을 전달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덕분에 우리학교만의 특성을 살린 흥미로운 콘텐츠가 많이 실렸다. 가령 창간호부터 연재된 '언어사적 만필(言語史的 漫筆)'은 라틴어 어근에서 비롯된 단어 하나가 독일,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 등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각도로 추적하며 언어의 풍성한 묘미를 전달했다. 국한문 혼용에 해당 외국어 단어는 국문병기 없이 그대로 활자화했다. 여러 나라 문자들이 좁은 지면에 복잡다단하게 어우러지며 우리학교다운 만필 콘텐츠를 연출했다.

외대학보의 역사에서 존재 가치가 가장 빛났던 시기는 역시 1980년대였다.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보는 대학생다운 방식으로 독자에 맞서 싸워 민주화를 쟁취해 내고자 했으며, 언론의 자유와 자주를 지켜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모두 사후 검열에 걸려 신문 배포 금지를 당하기도 했지만 1986년 4월 8일 자인 430호에 2면의 사설 〈교육의 목적을 망각한 군사교육〉과 6면 기사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생명,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외대학보는 사회의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 실상을 학생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리며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견인하기도 했다.

외대학보는 창간호부터 당시로써는 파격적으로 가로쓰기와 한글 사용을 지향했으며, 1968년에 발행된 제126호부터는 한자 쓰기를 완전 폐지하고 한글을 전용하는 등 대학 신문 제작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학교 성장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하며 대학의 역사를 기록하고 대학문화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외대학보는 현재 1,000호가 넘게 발행되며 대학 역사와 문화의 보고(寶庫)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자유언론 정론직필(自由言論 正論直筆)'이라는 기조아래 학생 기자들이 직접 편집을 담당하면서 진취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다양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성원들의 소통의 장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다.

-기록 및 사진 제공: 역사관

“이제 여자와 일하고 싶지 않다”, 펜스를 논란

문화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각종 분야를 불문하고 활발히 전개되면서 성폭력 고발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투 운동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최근 젠더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펜스’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다. 펜스는 불필요한 성추문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개인적인 규칙을 만들어 방지하려는 일종의 사생활 수칙이다. 하지만 펜스룰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

하다. 펜스룰은 ‘여성과의 만남이나 접촉을 차단해 관한 오해를 막기 위한 남성의 자기 방어적 행동 지침’이라는 의견과 ‘여성에게 새로운 차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공방의 대상이 된 펜스룰. 해결책일까, 또 다른 사회문제일까.

◆‘펜스룰’의 펜스는 울타리가 아니다

2002년,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 인터뷰에서 마이크 펜스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한 본인의 행동수칙을 밝히면서 “아내가 없을 땐 다른 여성과 단둘이 술이나 밥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시초로 펜스의 이름을 따서 개인의 행동지침을 정해놓는다는 ‘펜스룰’의 개념이 생겼다.

그런데 펜스보다 먼저 이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 바로 복음주의의 대부라고 불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이다. 그는 기혼 기독교인 사이의 불순한 만남을 비판하며 목회활동의 원칙으로 △교회 재정의 투명성 △복음 전파를 위한 협력 △성적 도덕성 확보를 제시한다. 이 중 성적 도덕성 확보는 아내가 아닌 여성과 단 둘이 만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즉 그레이엄은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 절제와 기독교적 수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유혹 자체를 회피하자는 것이다. 이렇듯 펜스룰의 본질 또한 여성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닌 종교인으로서의 개인 절제였다.

그렇다면 2002년에 제시된 펜스룰이 오늘날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3월, 워싱턴 포스트 보도는 펜스의 발언을 인용하며 펜스의 보수적인 결혼관을 전했다. 보도 이후 펜스는 “여성차별주의자”, “남성을 유혹하는 대상으로만 여성을 바라봤다” 등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펜스는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난 말이다”라며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이미 왜곡된 펜스룰은 미국에서 큰 논란이 됐다.

◆왜곡된 펜스룰의 극단성

우리나라에서도 왜곡된 펜스룰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2009년 아내와 사별한 뒤 기업 내 보좌관·수행원부터 집안 가사 도우미까지 모두 남성으로 바꿨다. 정 회장의 측근은 “주변에 여성을 두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조심스레 추측했다. ‘몽구룰’이라고 불리는 이 사례는 왜곡된 펜스룰이 특정성별에 제한된 채용과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최근 들어 허위사실신고처럼 미투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펜스룰에 대한 의견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듯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펜스룰 만화’가 등장했다. 이 만화는 연인 사이인 남녀가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기



전, 남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야한다”며 “후에 네(여성)가 성폭행 혐의로 날 고소하려할 때 무고함을 밝히려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만화의 내용은 실제 사례로도 나타났다. 2011년, 개그맨 김현철이 2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기 전 상호 합의를 통해 관계를 맺는다는 내용의 각서가 공개됐고 김씨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일부 남성이 여성을 ‘성별을 무기로 삼아 남성을 위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해 극단적으로 접촉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최근에는 회사 내 성폭행 검열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성과의 접촉을 막는 조치를 회사 사규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며 “여성 동료와 출장, 회식, 업무 등을 꺼리는 등 여성과의 교류에 더욱 조심스러운 분위기다”고 전했다. 성희롱을 막기 위해 내놓은 방어기제로서의 펜스룰이 성평등과 반대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차별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펜스룰이 가져오는 새로운 성차별 문제

‘사생활 관리수칙’이었던 펜스룰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성찰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펜스룰을 왜곡해 여성을 따돌리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허 조사관의 견해에 따르면 국내 권위 있는 인사들에 대한 고발이 확산됨에 따라 일부 남성들이 자발적으로 여성과의 교류를 줄이기 시작했고, 만남을 줄이면 성폭력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과 함께 이것이 심지어 미투 운동의 대처법이라는 논리로 확대된 것이다.

극단적인 펜스룰에 대해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펜스룰을 미투 운동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은 여성을 배제하겠다는 식으로 현재 상황을 잘못 진단한 것”이라며 “결국 여성을 공격하는 또 다른 방식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펜스룰이 여성의 채용 및 인사 불이익이나 직장 내 성차별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정당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투 운동으로 성평등 문제가 주목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달 KB국민은행이 신입채용에서 성차별 채용 비리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2016년 기준 은행 신규채용 성비를 살펴보면 대략 7대 3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전히 존재하는 취업·채용 과정 속 남녀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익명 신고센터를 설립해 직장 내 성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 하겠다”며 “펜스룰이라는 명목 하에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는 강력한 엄중조치로 대응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묵과해온 성폭력문제가 미투 운동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권력적 상하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가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다. 성별의 문제를 떠나 성폭력을 하나의 고질적인 폭력문제로 인식·비판하는 것을 지향해야 하며, 미투 운동과 펜스룰을 양성갈등문제로 소비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조유진 기자 96yujin@hufs.ac.kr

패션을
포착하다

흡선티플

오전 11시. 1교시 수업에 지친 학생들이 힘없이 다니고 있는 교내에 한 남자가 통화를 하고 있다. 일주일 내내 흡선티플 제안에 다 거절당한 기자는 웬지 저 분은 해줄 것 같더라는 느낌에 그를 붙잡았다. 셔츠 한 쪽을 빼 포인트를 준 스타일이 인상적인 정철민(중국·중국 17)씨가 1017호 흡선티플로 선정됐다.

본인 패션이 흡선티플에 올라갈 정도냐고 의아해했지만, 마감이 급한 기자의 간곡한 부탁에 웃으며 흡선티플 제의를 받아들였다.

기자(이하 기) : 오늘같이 1교시가 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해서 꾸밈 새도 없이 나오게 되는 것 같다. 그럼에도 꾸미고 나왔는데, 평소에도 부지런하게 갖춰 입고 등교하는 편인지?

철민(이하 철) : 사실 작년까지는 맨날 과잠, 휴리닝, 후드티... 조금 많이 프리하게 다녔다. 그런데 이번 학기는 통학을 하게 됐다. 아침밥을 7시에 일어나야 먹을 수 있고, 학교까지 40분이나 걸려서 아쩔 수 없이 기상 시간이 당겨졌다. 아무래도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신경 쓸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는 것 같다.

기 : 가디건 상태를 보니, 자주 입는 옷 같다. 혹시 가디건 입는 걸 제일 좋아하는지?

철 : 과에서 가디건 마니아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많이 입는다. 검정색, 남색, 빨간색.. 다양한 색깔과 스타일의 가디건을 가지고 있다. 가디건을 좋아한다고보다는 가장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자주 손이 간다.

기 : 만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대학선배처럼 입었다. 원래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좋아하나?

철 : 요즘에는 스트라이프나 체크무늬셔츠가 유행하는 것 같은데, 그런 캐주얼한 스타일은 직접 입어보니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았다. 최근에 다양한 스타일에 도전하면서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이 나를 어울린다고 느껴서 자주 입는다.

기 : 혹시 옷 입을 때 패션스타일을 참고하는 연예인이나 친구가 있는지?

철 :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과에서 패션 감각이 좋아서 유명하다. 그 친구가 옷 사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연예인이라면.. 아이돌들? 가끔 SNS에 올라온 무대 사진, 잡지사 사진을 보면서 참고한다. 그런 거를 보면 최근에 어떤 스타일이 유행하는지 알 수 있어서 꽤 도움이 된다..



기 :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옷 관리가 특히 중요할 때다. 본인만의 특별한 옷 관리법이 있다면?

철 : 관리법? 지금 가디건 상태를 보고 눈치챌겠지만 하필 최근에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옷 관리를 못한 것 같다. 전공어 공부를 하느라 매일 학원에 가고, 소모임 활동하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술도 먹어서..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는 관리 못한 티가 덜 나게 보푸라기가 잘 안 일어나는 자켓을 자주 입는다.



인터뷰를 마치고

기사 마감 잘 마무리하라는

응원과 함께

철민씨는 해맑게 사라졌다.

조유진 기자 96yujin@hufs.ac.kr

헌법 개정 초읽기... 이번 정부의 개헌의 방향은?

사진 출처 : AP-NEWSIS

문재인 정부가 2018. 6월 총선과 동시에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의 발표 전, 후로 국회에서는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과 정치적 논쟁이 일어났고 인터넷 상에 선 토지공개념이나 지방정부 같은 단어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차지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개헌’에 관해 개정목적과 절차,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에 대해 강명원 국가리더전공 소속 헌법 외래교수에게 물었다.

강명원 교수 법학전문 대학원

Q1. 먼저 헌법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이전의 헌법개념은 ‘국가의 조직이나 권력에 관한 행사를 규정’ 하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보장 규정까지 더해져 ‘국가의 권력조직과 권한행사에 대한 규정’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보장 규정’ 이 합쳐진 최상위 개념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국가에 있어서 최고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최상위의 법으로서 우리의 실생활을 규율하고 있는 일반 법률이나 명령, 규칙과 같은 규정들은 헌법에 합치되게 제정되어야 한다.

Q2. 현 정부가 개헌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헌법규정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정치적 생활이나 사법적인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때문에 이러한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을 우리 생활현실에 맞게 바꿈으로서 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우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해는 1987년이며, 이는 9번째 개정에 속한다. 1988년 2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니 현재까지 약 30년이 됐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경제 △문화 △사상 등이 많이 바뀌었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가치관이 도입됐다. 따라서 현행 헌법이 오늘날의 현실을 규정하기엔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전부터 개헌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군사정권시절과 여야 대립, 국민의 대통령 지지도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개헌이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신의 공약이기도 하면서 국민의 지지도 얻고 있기 때문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Q3. 개헌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한다. 그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대통령은 이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이 의결하고 찬성이 된다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돼,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공포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석수는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총 300석이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로 인해 현재는 293명인데 이 중 여당이 121명이고, 나머지가 야당이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국회재적의원 2/3 이상, 현재는 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여당 입장에서는 당내 단속과 함께 개헌안에 찬성하는 75명 이상의 야당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 모두가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통과가 녹록치 않다.

Q4. 개헌안의 내용 중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첫째, 선거권에 대한 연령제한을 18세로 낮췄다.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엔 찬성과 반대가 있다. 찬성 측의 입장은 타 국가 헌법이 대부분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듯, 18세는 충분히

자기의 가치관을 갖고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은 18세 고등학생들의 경우 균형적인 시각을 교육 받아야 할 나이인데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 학교가 교육의 본질을 잃고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싸우는 작은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헌법조항에 근거하여 고등학생들의 선거운동도 가능해진다.

두 번째로 토지공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이란 쉽게 말하면 국가가 개인 토지재산권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토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개념이다. 재산권보장이 처음 규정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없었지만, 현대 복지주의 헌법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불합리한 현상들을 제거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산권을 행사할 때에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동산 투기 등 빈부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더욱 강화된 규제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제안이 요구됐다. 즉, 그 제안은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개인의 토지재산권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이상적인 개념 같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가가 개인의 재산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한다면 사인 경제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적자치 원칙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제를 당하는 입장, 다시 말하면 개인이나 사기업 같은 단체는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법률에 근거한다면 위헌법률 심판으로써 이를 제거할 수 있지만, 헌법 직접적 효력을 지니는 이 규정은 막을 방법이 개정 밖에는 없다.

세 번째로, 지방 분권에 관한 사항이다. 헌법 개정안 제1조 3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개정안 제9장 121조 내지 124조에 지방자치에 대해 규정하면서, 지방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개인적으로 지방 정부라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격상시키기도 하지만, 지방분권을 넘어선 하나의 독립된 작은 국가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개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확대된다면 마치 국가 간의 분쟁처럼 지방정부간의 분쟁 발생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중 하나는 자치재정권과 더불어 자치입법권이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모든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고, 지방의 대부분의 사무 처리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하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에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렇다면 지방은 당연히 중앙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지방분권은 퇴행될 수 있다.

넷째로, 현행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이다. 하지만 이번 개헌에서 ‘국민’이 ‘사람’으로 바뀌었다. 국민은 국적법에 따라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다. 외국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래 외국인을 대우하는 것은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르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서 대우받는 만큼 우리도 그 나라 국민을 같은 지위로 대우하겠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개정 헌법 10조에선 이를 개정하여 외국인과 우리나라 국민과의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껏 그들이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복지혜택이나 제도들은 개헌 헌법 제10조에 근거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쉽게 예를 들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는
데 **낡은 법이 현재를 규정하기엔
현재 사회와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헌법은 ‘국가의 권력조직과
권한행사에 대한 규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규범’이
합쳐진 **최상위 개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절차적으로도 정당해야 하고
내용적으로도 정당해야 한다

헌법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이에 근거해
우리에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명령, 조례 등이
바뀌기 때문이다.

어 말하면 우리나라 독거노인에 대한 기초 생활 연금이 우리 국민에게만 지급됐지만, 개헌 후 외국인 독거노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한다고 했을 때, 외국인 독거노인에게도 연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된다면 재정적인 이유로 연금 금액은 이전에 지급되는 금액 이하로 떨어지거나 국민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국가의 전체적인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제각각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위반하여 임기를 늘렸고,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통해 종신집권을 꿈꿨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대한 불신이 강했다. 1987년부터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로 굳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5년으로는 대통령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래서 연임을 통해 8년을 집권하게 된다면 대통령 임기 말에 정책 추진의 효과가 떨어지는 레임딕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4년 연임제를 주장한다. 4년 연임의 근거가 헌법상에 마련되면 정책면에서 조금 더 신뢰가 갈 것이다. 반면 헌법 개정논의 초기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원정부제를 추구한다고 했으나 이번 개헌안엔 대통령의 권력은 거의 변동 없이 8년 집권이 가능하다. 이는 또 다른 제왕적 대통령제로 가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Q5. 이번 개헌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국가에선 헌법 조항 하나를 바꾸더라도 공청회, 세미나와 같은 의견 수렴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헌법에 규정된다는 것은 다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두고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청와대에서 소수의 헌법 학자와 관련자들이 개정안을 빠르게 만들어 냈다. 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국민투표로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여론수렴 절차에 의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물론 개헌 절차엔 여론수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적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는 절차적으로도 정당해야 하고 민주적(내용적)으로도 정당해야 한다. 이번 개헌안은 절차적으로 정당할지는 몰라도 민주적인 측면이 결여됐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국민들의 법의식은 개정헌법안을 판단할 만큼 높은 수준이 아니라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개헌에 현혹될 수 있다는 점이다.

Q6. 이번 개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번 개헌안은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상적이다. 문제는 이를 집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어떤 이상적인 사람이라도 권력을 가진다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헌안엔 경제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나 외국인과 자국민의 경계를 허무는 조항 등으로 헌법 학자로서 심히 우려되는 다수 존재한다. 헌법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이에 근거해 우리에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명령, 조례 등이 바뀌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이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번 개헌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우여곡절 첫 마감

3월, 나는 개강하자마자 장염에 걸려 일주일을 누워있었다. 돈은 돈대로 들고, 몸은 몸대로 고생을 했다. 수업 오티를 들으며 열심히 학보 활동을 하려던 나의 계획은 무너졌다. 처음으로 모여서 정식 회의를 하는 날에 결국 아파서 가지 못했다. 개강호 기사 제안서는 겨울방학 때 연습 삼아 작성한 걸 제출했다.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기획을 맡게 됐다. 덜컥 뽀히니 내심 기분은 좋았지만 걱정이 컸다. 방중교육 때부터 내 걱정은 언제나 “내가 쓴 글이 마음만큼 안 나오면 어떡하지”였다. 취재처에 전화할 때도 덜덜 떨면서 했다. 말은 제대로 했는지도 가물가물하다. 원래 인터뷰를 가려는 곳은 두 곳이었는데, 한 곳은 인터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웬지 시작이 안 좋다는 느낌이 들어 더욱 우울해졌다. 취재처가 한 곳이다 보니 부족하거나 빠지는 정보가 생겼고, 한 사람의 인터뷰로 내용을 늘리다보니 글은 턱없이 형편없었다. 어쉴 뿐 내 모습이 웃기면서도 걱정됐다. 동기들이 “이번에 네가 쓰는 기사 주제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도서관 신축”이라고 대답했다. 다들 멋있다고 말하는데, 꼭 읽는다고 했는데, 마감 날이 다가올수록 내 글에 점점 자신이 없어졌다. 마감하는 날에는 ‘현실도파’를 했다. 써야하는 글이 있었지만 동아리연합회 공연을 보러가고, 비가 조금씩 오지만 동기랑 괜히 학교 산책을 하다가 들어왔다. 학보사실 문을 열었는데 다들 분주하게 각자 맡은 기사를 쓰는 모습을 보니 시험 전 날이나 받던 ‘현타(현실자각타임)’가 왔다. 급하게 앉아서 쓰려는데 글이 잘 써질 리가 없다. 예전에 다른 기자들이 쓴 기획을 보면서 말투나 전개방식을 최대한 참고했는데도 원래 내가 글 쓰는 스타일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늦은 시간 처음으로 완성한 글을 편집장님에게 건네주니 아예 한 문단을 뒤집어 아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신문 발간 전에는 마땅한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기사 제목이 몇 번 바뀌기도 했다. 나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를 맡았는데 그만큼 책임을 못 진 것 같아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들었다. 그리고 21일 발행 날, 카톡이 울렸다. 익명의 한 사람이 “이번 외대학보 유익하네”라며 “다음 호가 기대되고 수고 많았다”라고 쓴 글이 단독방에 올라왔다. “수고했다”라는 말, 나에겐 감사하고 벅찬 한 마디였다. 룸메이트가 “네가 쓴 기사 사람들이 봤나보다. 도서관 글 올라왔네”라고 하니 내가 쓴 기사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것이 뿌듯했다. 동기들은 “이걸 다 네가 쓴 거야?”라며 놀라면서 고생했다고 해줬다. 첫 인터뷰를 할 때의 부담감, 밤을 새는 고통을 다 잊을 만큼 보람찼다. 힘들고 어설프었지만 이번 경험을 기회로 삼아 다음에는 더 확실하고 제대로 된 글을 쓸 수 있으리란 느낌을 받았다. 취재처 다양하게 잡아보기, 다른 학보기사들 읽으면서 형식 익히기, 내가 맡은 주제에 책임감 가지기 등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틀이 잡혔다. 처음엔 정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에 부담감이 컸다. 그렇지만 막상 해보니 첫 시작이 2% 정도 부족했어도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다. 물론 편집장님이랑 부장님이 내용 첨삭을 했기 때문에 나의 첫 기사는 완전한 내 글은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 가면 나중에는 알아서 척척 해낼 수 있을 거다. 이번 학기가 끝날 때쯤에 내 기사에서 발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조유진 기자

페미니즘 – 그들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걸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이 뜻밖의 페미니스트 논란을 겪고 있다. 아이린은 지난 18일 예능프로그램 ‘레벨업 프로젝트2’ 1000만 뷰 달성 기념 팬미팅 자리에서 “최근 읽은 책이 무엇이니?”는 팬의 질문에 “최근에 ‘82년생 김지영’ 그거 읽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일부 남성들이 해당 소설은 페미니스트들이 읽는 소설이라며 아이린의 독서 생활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아이린의 포토카드를 찢거나 불태운 뒤 아이린을 맹비난하는 글을 팬 커뮤니티에 게시하면서 논란은 불거졌다.

책 한 권 읽었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사상을 단정 짓거나 검열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다. 논란이 되는 도서 ‘82년생 김지영’은 출간 7개월 만에 10만 부가 팔려 나간 베스트셀러다. 이 책은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 1982년생 김지영 씨의 인생을 통해 여성이 일상적으로 겪는 차별과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잘 그려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유재석을 비롯한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읽은 책이다. 해당 책이 페미니즘적인 지를 떠나 많은 이들이 읽었음에도 유독 여자 아이돌만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은 다소 의아한 일이다.

실사 해당 책이 페미니즘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페미니즘은 남녀가 평등하며 본질적으로 동등할 수 있도록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론이다.

OECD 국가 중 성평등지수가 최하위인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아이린의 독서 생활에 대한 항의로 아이린의 포토카드를 찢거나 불태운 뒤 그걸 자랑스럽게 인증하고, 더 이상 그녀의 음악을 소비하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일부 남성들의 모습은 어리석어 보일 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수많은 개개인이 서로의 생각과 주장을 어떠한 억압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아이린이 페미니스트라면 그것 역시 개인의 생각과 신념이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

더 이상 페미니즘 책을 읽었다고, 혹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여성들을 맹비난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일부 남성들은 페미니즘을 ‘남자를 우습게 보는 이론’이라고 생각하곤 페미니즘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지만, 한번이라도 우리 사회의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거나 페미니즘 관련 도서를 읽어본 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 평소에도 페미니즘을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의 관심이 라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진정한 자유 –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사람들은 각자 다르게 생각한다. 이들 중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연대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는 대립한다. 이들은 다양한 주장을 펼치며 각자의 진리를 추구한다. 자신이 믿는 정의가 진리라고 믿으며 상대방도 이에 공감하길 바란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각자가 추구하는 진리를 실현하려는 이곳, 바로 사회다. 이들은 서로 대립과 화합을 반복한다.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실현하고 나름의 정의를 구현하려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진리가 상대방의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이 활동을 일컬어 ‘토론’이라 한다. 토론을 통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의견을 조율하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입장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양측 모두의 진리를 도출한다. 하지만 이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까다롭다. 서로의 주장에 감정이 격해져 다툼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양보하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한다. 가끔은 상대의 입장을 무시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여 비극을 초래한다.

영국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위와 같이 진리를 찾는 방법을 그의 저서인 『자유론』에 설명했다. 밀에 따르면 생각의 자유는 중요하다. 누구든 생각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생

각과 의견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따라서 다수에 의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는 ‘다수의 횡포’를 경계해야 한다. 다수의 그릇된 결정으로 소수의 진리가 묻힌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예수와 소크라테스, 이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비해 현명하고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수에 의해 이들의 진리는 사라졌다. 그리고 후대에 와서 사람들은 이러한 비극을 개탄한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귀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의견이 진리일 수도 있고, 혹은 일부분의 진리를 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주장이 반대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 정말로 옳은지도 타당한지도 모를 채 스스로 진리라고 우기는 근거 없는 주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고 지키기 위해 각기 다른 주장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며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만일 그 이익이 개인에게만 해당된다면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맞닿아 있다면 검증을 통해 더 나은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지 않고, 서로 간의 충분한 토론과 이해를 통한 사회와 개인의 조화, 즉 궁극적인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산 기자 96mountain@hufs.ac.kr

봄바람 휘날리며

박세원(이탈리아어과 17)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이번 1016호에서는 다양한 교내 소식과 여러 사회적 이슈들을 자세히 다뤘다. 우선 스마트 도서관 공사 현황에 대한 관계자 심층 인터뷰로 많은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줬고, 창·취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진로취업센터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학우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미투’, ‘위드유’ 운동과 전 세계적인 쟁점인 보호무역주의를 언급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의 기사들을 담았다는 점이 매우 유익했다.

무엇보다 이번 학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맨 앞표지에 적힌 #WithYou 라는 해시태그였다. 이는 제 8면에서 최근 공연 예술계, 문학계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까지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관한 심층 보도로 이어졌다. 이 기사는 미투 운동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고평가되었으며 시기적절했다. 다만 본교 및 타 대학에서의 미투 운동 사례들을 좀 더 언급해줬으면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기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아쉬움이 남는다.

학생회비 기사 역시 학기 초에 한 번쯤 생각해볼만한 시

의 적절한 주제였다. 이 기사에서는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했다. 설문 결과가 도표와 그래프로 정리돼 보기 편리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기사 전반에 학생회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내포돼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학교별로 학생회비의 금액과 방법이 상이하고, 회비 사용 계획에 대한 고지 없이 무조건적인 납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필자가 우려한 부분은 기사에 특정 학과 및 일부 학생들의 응답 자료만을 포함할 경우, 독자들에게 해당 학과나 학생회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현 문제점을 명시한 후, 금액 통일과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방식의 학생회비 납부 및 운영을 촉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가고 서서히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교정의 피어나는 꽃들처럼 외대 학보가 힘차고 알찬 새 학기를 열어주기 바란다.

다양성의 총족

김윤주(국제지역·아프리카17)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이번 1016호는 학교 내외의 행사들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사들로 구성됐다. 2015년부터 진행해왔던 △스마트 도서관 현황 △진로취업센터 △학생회비 논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미투 운동까지 다양한 읽을거리들로 구성됐다.

그 중 7면에서 다루고 있는 학생회비 논란 문제는 흥미로운 기사였다. 신입생 혹은 학교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학생회비 문제에 대해 많은 불만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주변에서도 학생회비 납부를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기사에서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이 기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회비 납부에 불만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생회비가 과 행사 이외의 행사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례로 몇몇 학부에서는 학생회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학생회비의 투명한 운영 이외에 타 대학에서 실시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던 학생회비 운영 방향에 대해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10면의 열린공간에서 ‘나체가 말한 삶의 자세’라는 기사는 나체 철학을 설명하며, 우리의 삶을 어떤 자세로 나아가

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 다소 낯설 수 있는 주제를 삶 속에서 찾아보는 방식의 기사가 새로웠고, 철학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기사였다. 12면의 인물 면에서는 우리 학교 선배의 성공적인 창업 사례를 소개해, 창업에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더 쉽게 와닿는 기사였다.

하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던 기사도 있었다. 서울캠퍼스 대위가 장학금과 학점 특혜와 관련된 우리 학교 전 현직 교수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는 기사였다. 이 기사에서 아쉬웠던 점은 부비대위장이 비대위장으로 승격했다는 내용이 이 기사에서 꼭 필요한 대목인가였다. 오히려 개강 행사 및 총장 규탄 행사인 ‘외대 랜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거나 총장을 규탄해야 하는 이유 등을 환기시켰으면 더 좋은 기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작은 아쉬움을 제외하고 이번 1016호는 학교 내외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어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기사였다. 앞으로도 학교 내외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제언함으로써 더 발전해가는 외대 학보가 되길 바란다.



국 · 부장 고정칼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지난달 30일, 총학생회장단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신한지 2년만의 일이다. 이번 달 10일, 선거운동이 종료되면 11일 · 12일 이틀에 걸쳐 학생회장 투표가 시작된다.

이번 1017호에는 유독 학교와 학생 간 소통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제기됐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기사에선 학교 측이 성적 평가 방식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학생의 인터뷰가 실렸다. 실제로 대학교소개혁평가를 위해 갑작스레 학교가 내린 결정이었으며 과정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학과 통폐합’ 기사에서도 대두된 문제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학교의 통폐합 계획이었고 이에 학생들은 분개했다.

누구보다 학생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학교가 일방적인 통보와 변경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학생 대표 기구이다. 지난 2년 간 비대위 체제 하에 이뤄진 학교와의 소통은 반쪽짜리에 불과했다. 입후보자 부족으로 학생 투표 없이 설립된 비대위는 많은 학생들의 지지와 응원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었다. 비대위 체제는 곧 학생들의 무관심을 반증하는 결과물이었다.

드디어 총학생회단 재선거에 입후보자가 등록됐다. 이로써 우리에게 학생 대표 기구 설립의 기회가 주어졌다.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될 것이다. 정정당당히 우리의 권리를 실행하고 요구할 날이 머지않았다.

박주원 기자 94swj04142@hufs.ac.kr

13년 만에 울려 퍼진 평화의 소리

13년 만에 평양에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용필부터 아이돌그룹 레드벨벳까지 세대를 망라한 스타들이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의 이름으로 동평양대극장 무대에 올라 북한 주민들에게 즐거운 무대를 선사했다. ‘봄이 온다’라는 무대의 주제에 맞게 우리 한민족의 평화에도 봄바람이 불었으면 한다.

남북이 평화를 위한 걸음을 때는 시점에서 우려도 교차하는 게 사실이다. 청와대는 이번 달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TV로 생중계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단과 함께 평양을 찾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월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겨레말 큰사전 공동 제작’ 등 장밋빛 시나리오들을 쏟아내고 있다. 11년 만에 재개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싶은 현 정부의 마음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본질인 북한 비핵화를 아직 의제로 확정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보여 주기식 이벤트와 홍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유념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해법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미국은 ‘선 핵 폐기 후 보상’이라는,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을 제기하고 있는 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후 밝힌 ‘선 보상 후 단계적 비핵화’로 기울고 있다.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된 후 곧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북핵 합의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서 벗어나 우회적 방식으로 전환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정부가 오랜만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미국의 강경한 대북 자세와 김정은의 방증은 한반도 정세를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 이렇수록 정부는 북·미 이견을 조정·중재하고 보수세력의 반발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 문제의 핵심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지민 기자 94pjimin0303@hufs.ac.kr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편집장 박주원 010-4549-3209 94swj04142@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채영길
편집장 박주원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01
www.hufspress.net

‘존버’의 미학

‘비트연금’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는가.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연금을 합친 용어다.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사두고 가격이 오르길 기다렸던 사람들이 지난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자 연금의 역할을 할 정도의 수입을 얻어 생긴 신조어다. 이 여파로 열심히 버티는 것이 승리한다는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도 같이 유행이 됐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서 코인의 인기는 떨어졌지만 ‘존버’라는 용어만은 여전히 쓰이고 있다.

존버의 승리는 게임 ‘배틀그라운드(이하 배그)’에서도 마찬가지다. 배그는 약100명의 게임 캐릭터들이 서로 경쟁해 마지막 한 명 혹은 한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게임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이나 나무 뒤에 인내심 있게 기다리다 얼마 남지 않은 적을 처리하는 것은 좋은 전술이다.

우리학교 안에는 ‘종강까지 존버 가자’라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비트코인 추세처럼 우리의 성적, 과제량 그리고 인간관계는 늘 변한다. 배그에서 존버하다 수류탄에 맞아 게임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버티다 무너지는 날도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언젠가 오를 것이며 배그 이용자는 언젠가 치킨을 먹을 것이다*. 정신없이 한 학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 끝에는 짜릿한 종강과 방학이 있다. 존버 후 승리를 맛보는 것은 어떤가.

*치킨을 먹다 :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승리하는 것을 ‘치킨을 먹는다’고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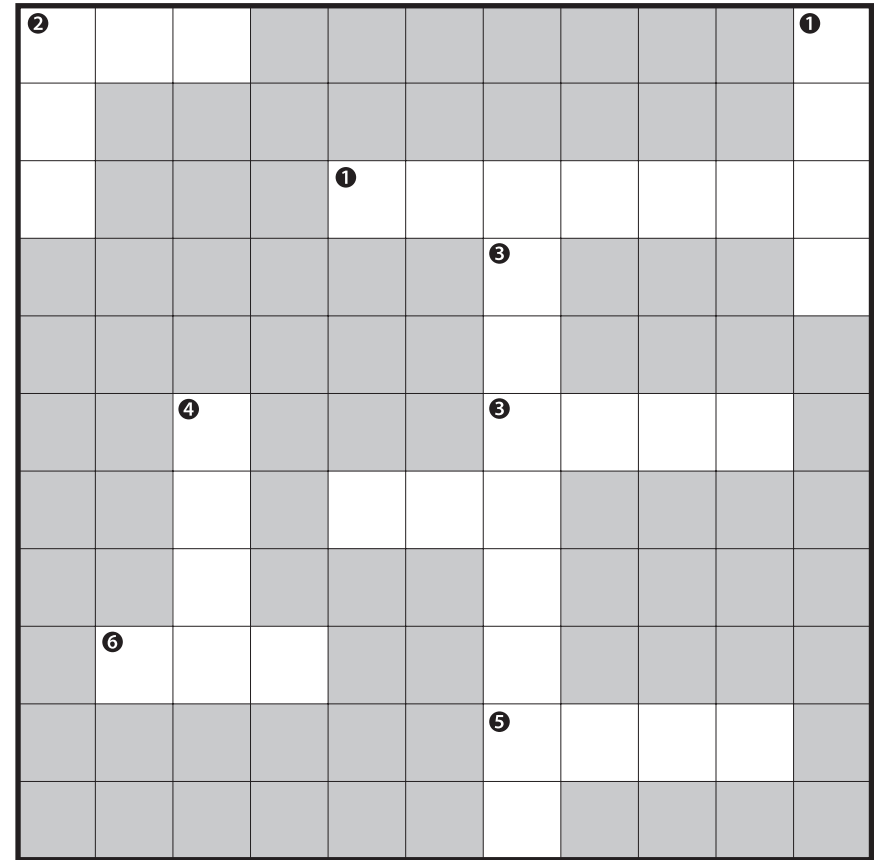
이하정 기자 94haj@hufs.ac.kr

만평



기사제보 편집장 박주원 010-4549-3209 94swj04142@hufs.ac.kr

십자말풀이



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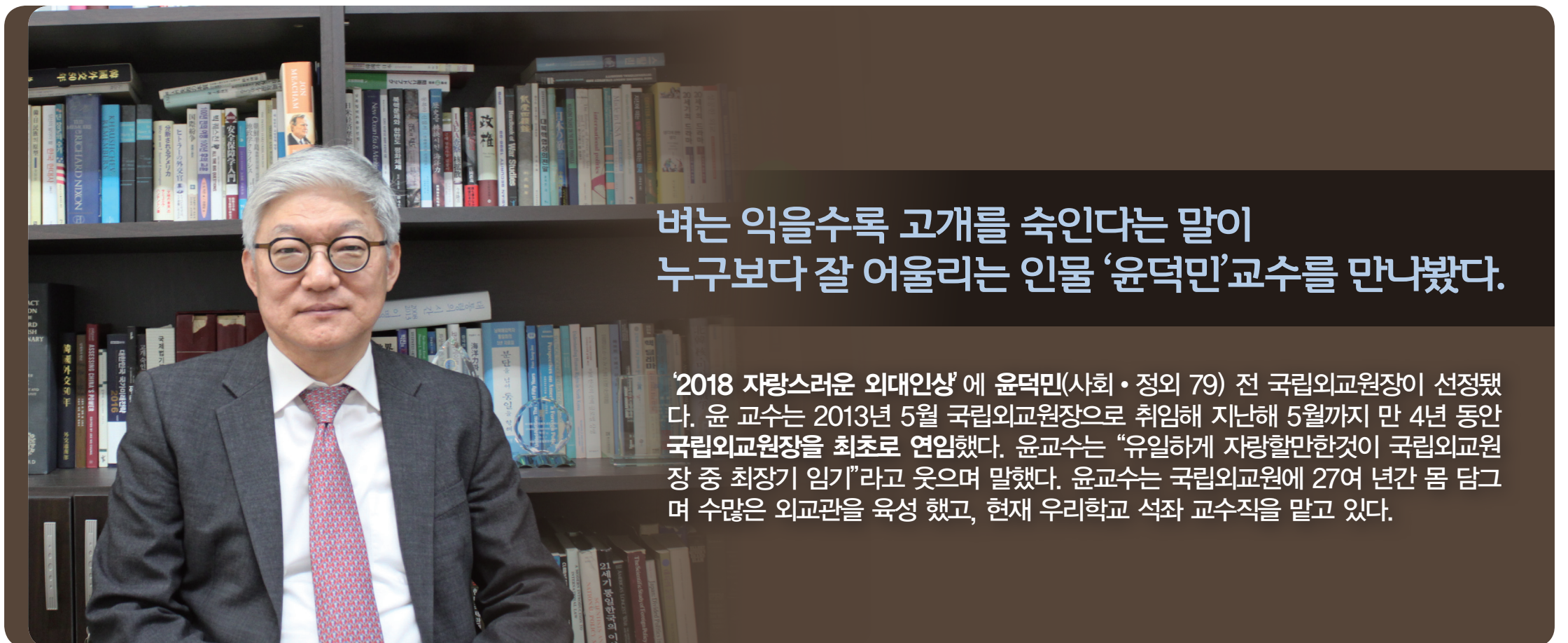
- 발대식이 개최됐다.(3면 참조)
- 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 된다. (4면 참조)
- 이번 '지구촌을 읽다' 는 ○○○○학과 교수님에게 기고글을 받았다. (6면 참조)
- 서지현 검사의 검찰청 내부 ○○○폭로로 우리나라 미투운동이 시작됐다. (8면 참조)
- 학과 ○○○○의 원인과 이유에 대한 기사가 이번 외대학보에 실렸다. (4면 참조)
- 을 미투운동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8면 참조)

세로

- 시인○○○○ '문학으로 일본 읽기' 강좌 개강 (3면 참조)
- 대학원에서 성폭력 행위가 두 건이나 발생했다. (7면 참조)
- 지식출판원은 세계문화유산답사기 특강을 진행했다. (2면 참조)
- '한국-태평양 동맹 경제협력 시대의 개막' ○○○○가 개최됐다. (2면 참조)
- 한국-태평양 동맹 경제협력 시대의 개막' ○○○○가 개최됐다. (2면 참조)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월경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영화예매권 2장, 또 다른 1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인물 ‘윤덕민’교수를 만났다.

‘2018 자랑스러운 외대인상’에 윤덕민(사회·정외 79) 전 국립외교원장이 선정됐다. 윤 교수는 2013년 5월 국립외교원장으로 취임해 지난해 5월까지 만 4년 동안 국립외교원장을 최초로 연임했다. 윤교수는 “유일하게 자랑할만한것이 국립외교원장 중 최장기 임기”라고 웃으며 말했다. 윤교수는 국립외교원에 27여 년간 몸 담으며 수많은 외교관을 육성 했고, 현재 우리학교 석좌 교수직을 맡고 있다.

Q1. 이번 해 ‘자랑스러운 외대인’에 선정된 소감이 어떤가요?

솔직히 말하면 기라성 같은 선배들도 많고 동문들 중에 대단한 분도 많은데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 지가 고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자랑스러운 외대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어서 고사했었죠. 결국엔 이 상을 앞으로 더 우리학교를 빛낼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받으면서도 굉장히 쑥스럽고 부끄러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상을 받아보진 못했지만 막상 외대인 상을 받고 나니 개인적으로 가장 영광스럽고 의미가 있는 상이 아니었나하는 생각도 드네요.

Q2. 언제부터 국제정치분야 전문가로서의 커리어를 꿈꾸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국제정치 학자가 되려던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도 그런 것이 1979년도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0·26 사건이라는 박정희 암살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어서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났고 1980년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서 거의 제대로 된 대학생활을 못했어요. 당시 공부할 열심도 할 수 있는 사회풍조도 아니어서 저는 오히려 연합 봉사서클활동에서 아학, 불우 이웃 돕기 등 교외활동을 재미있게 했어요. 그러다 어느덧 4학년이 돼 진로 고민을 하다가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유학을 갔죠. 그 길로 학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렇게 국제정치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Q3. 국립외교원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립외교원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중장기적 외교정책 연구 기능과 싱크탱크(think tank)로의 역할이에요. 2013년까지 국립외교원이 외교안보연구원으로 불리던 시절에는 연구기능을 주로 수행했어요. 한국경제신문이 시행하는 싱크탱크 조사에서 국립외교원은 10년째 우리나라 일등자리 놓친 적이 없어요. 이렇듯 국립연구원의 싱크탱크 위상은 매우 높아요. 국제적으로도 명성 있는 기관인데, 제가 원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싱크탱크 글로벌 톱10 진입을 목표했지만 아직은 20~30위에 머무르고 있어요.

국립외교원의 두 번째 기능은 외교관 교육기능이에요. 2013년에 국립외교원으로 전환되면서 더 강화된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외무고시를 통해 선발하는 외교관이 주를 이뤘던 것에 비해, 전환 이후에는 양성하는 외교관을 중시해요. 국립외교원 입성 후 1년 동안의 스파르타식 교육을 통해 외교인재를 육성해요. 저는 원장 4년을 포함해 8년 이상 국립외교원 전환과정 TF(Task Force)의 팀장으로서 국립외교원 전환과정 전반에 관여했어요. 기존엔 일반전형으로만 외교관을 선발하다 보니 외교관들이 지역 특수성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외교관을 뽑자는 취지로 △특수지역 언어 전문 인력 △국제법 전문 인력 △환경 전문 인력 세 부류의 선발을 도입했어요. 제가 은퇴 한 후 일반전형으로 환원돼 아쉬움이 크게 남아요. 외교엔 전문성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고시에 대한 명예가 너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일은 90년대 초반에 남북한 핵협상을 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임동원 원장, 공로명 원장을 모시고 판문점 회의를 다녔어요. 그 당시에 남북회담을 보면서 북한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북한 핵문제를 주시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상과 현실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꼈죠.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국제 안보 분야를 포함해 여러 분야를 섭렵했어요. 그렇게 배운 것 중에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은 점은 우리나라는 항상 반쪽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학문의 세계는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하는 현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는 보수의 나라가 됐다. 진보의 나라가 됐다가 반복해요. 특히 그 기준은 북한을 보는 시각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저처럼 북한에 대해 현실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은 수구꼴통이 되더라고요. 27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느낀 점은 진보, 보수의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리더십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Q4. 현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ID학부 소속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김인철 총장의 배려로 석좌교수직으로 올 수 있었어요. 다시 여길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한 영광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첫 출근을 하던 날 외대앞역에 내린 순간에 30여 년 전의 추억이 되살아나며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ID학부에 소속돼 있으면서 ID학부생들에게 특강과 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어요. 또 △전직 외교부 차관 △통일부 차관 △외교안보 수석 분들과 한 달에 한 번 씩 토론회 모임도 갖고 있어요. 만나서 최근 정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 외에 조선일보 정기 칼럼리스트로 활동, 여러 인터뷰 등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는 학문적인 연구를 하고 싶어요. 이전에는 너무 정책적인 일만 해 와서 아쉬웠어요. 아직 업두를 못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외교정책, 외교사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 자료를 모으고 있는 단계예요. 또한 스터디 모임, 연구 모임을 통해 중진 학자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외교안보 분야에는 30~40대 학자들이 많이 없는 점이 아쉬워요.

Q5. 국제정치학자로서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우리나라외교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무래도 한소 수교, 한중 수교를 뽑아야죠. 유학에 가 있던 시절 ‘미국외교정책’ 수업을 듣는데, 교수가 미국의 외교정책은 소련이 하는 것을 반대로 하는 일이라고 설명한 것이 참 재미있었어요. 과거엔 우리 외교의 80~90프로가 북한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 때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은 북한의 반대였죠. 그만큼 소모전을 많이 벌였어요. ‘한소 수교’, ‘한중 수교’라는 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북방외교예요. 북방외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말부터 시행했는데, 이걸 가장 잘 수행한 정권이 노태우 정권입니다. 노태우 정권 때 냉전이 붕괴되는 틈을 활용해서 동구권과 수교를 시작했어요. 헝가리와 수교를 시작하면서 결국 소련과 수교도 가능했어요.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해

야지만 한국과 수교를 할 것이다”라며 “한국이 최후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런 중국과 한중수교를 하게 한 당시 노태우 정권의 외교정책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모스크바-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공적인 북방외교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한중 수교, 한소 수교를 통해 평양으로 가서 북한이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서에 사인을 하게 만들었죠. 이후 북한이 핵개발로 반격을 하긴 했으나 이때가 우리나라 현대 외교사에서 가장 빛을 발하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Q6. 현재 (석좌교수직에서 보는) 우리학교는 교수님이 학부생 시절 봤던 우리학교와 다른 점이 있다고 느끼나요?

전혀 다릅니다. 국력이 신장된 만큼 학생들의 옷차림부터 일단 달라요. 다들 신남선녀 같아요. 그때는 캠퍼스도 보잘 것 없었어요. 또 지금은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나라 말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리더라고요. 다양한 종류의 외국어를 들으면 학교가 많이 국제화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좋은 일이지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학교에 와서 한 스피치 속 ‘글로벌 코리아’라는 표현은 사실 제가 만든 표어입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표어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외대 학생들을 보고 진정

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가에서의 기회를 이용하는 큰 세계를 보고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Come to Hufs, Meet the world”라는 슬로건 또한 실천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경향이 있고, 마치 우리나라가 적폐 천지인양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세계를 보면 기회도 너무 많고 할 일도 너무 많습니다. 옛날의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미국 보고서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2010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투자 세계 5위를 하고 있어요. 순위를 보면 1위 미국, 2위 중국, 3위가 일본, 4위 독일 그리고 5위 우리나라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소리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2050년에 싱크탱크 세계 6위까지 될 수 있다는 비전도 나오고 있어요. R&D가 5위정도 할 수 있는 나라라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헬조선이라 부르고 적폐로 만들어 버리면 그런 활력은 나올 수가 없죠.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학교 학생들에게는 그런 활력이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으로 글로벌 코리아의 모습을 느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엄청난 감동을 느꼈어요.

Q7. 외교관 또는 국제관계학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외교관이나 국제기구에서 활약하는 건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에요.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세계가 무대인만큼, 이런 직무들이 우리학교 특성상과도 잘 맞는 우리학생들에게 적합한 일이라 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노령사회가 돼 가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몇 년 내에 은퇴를 하다 보면 당장 우리나라에 노동인력이 7%정도 부족해지게 돼요. 우리학교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랍로 얼마 후엔 찾기 어려워지게 되는 우리나라의 보물이에요. 또한 이웃나라 일본의 노령화를 보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다양한 스펙 쌓기도 하고 해외에 눈을 돌리

싱크탱크(think tank) : 모든 학문분야 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하여 조사·분석 및 연구 개발을 행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주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전략을 연구한다. -출처: 시사상식 사전

테스크 포스(Task Force) : 군사와 행정 분야에서 특정한 업무, 임무를 할당받아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되는 임시 조직. -출처: 시사상식 사전

북방외교 : 1980년대 우리 정부가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 통일기반 조성을 추구했던 외교정책 -출처: 시사상식 사전

R&D(Research and Development) : 과학적 연구와 기술적 연구를 총칭해 △기업조직 △정부조직 △비영리조직이 행하고 있는 기초·응용을 포함한 연구·공학과 프로세스의 설계 및 개발에 대해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인간, 문화, 사회의 자식을 비롯한 지식 증진을 위한 창조적인 일’이자 새로운 응용물을 고안하기 위한 지식의 이용’을 가리킨다. -출처: 시사상식 사전